



# “난 KIA의 싸움닭 불펜은 내게 맡겨”

김재열

## KIA 불펜 투수 김재열 ‘필승조’ 부상에 마운드 책임감 “실패를 통해 더 강해졌다”



김재열이 KIA 타이거즈의 ‘싸움닭’을 자처했다. 올 시즌 KIA 마운드에는 부상이 겹쳤다. 전반기에는 선발진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고전했고, 후반 기에는 불펜에 부상 경보가 내려졌다.

7월 29일 장현식에 이어 7월 31일에는 전상현이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조가 됐다. 8월 10일에는 마무리 정해영까지 오른쪽 어깨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는 등 KIA의 강점으로 꼽혔던 ‘필승조’가 동반 이탈했다.

8월 23일 정해영이 복귀했지만 장현식과 전상현은 부재중이다.

필승조는 빠졌지만 오히려 KIA 불펜 분위기는 뜨겁다. 김재열도 “우리 팀이 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며 당당히 마운드에 오르려고 있다.

올해로 KIA에서 3년 차. 김재열은 2014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방출의 아픔을 겪었다.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사회적 야구단에서 활약했던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0년 우여곡절 육성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고, 같은해 9월 6일에는 간절하게 기다렸던 프로 데뷔전도 치렀다.

첫 등판 당시 긴장감으로 손을 떠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 시즌은 누구보다 강렬한 눈빛으로 타자들을 상대하고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맏 윌리엄스 감독이 마무리 후보로도 언급했던 김재열은 2021년 24경기(32.2이닝)에 나와 경력을 쌓았고, 올 시즌에는 긴장감 가득한 순간 마운드에 오르려고 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김재열은 KIA 불펜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좋은 커브를 보유한 김재열은 지난 2일 삼성전에서는 150km를 찍으면서 강렬함을 더하기도 했다.

김재열은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작년보다는 중요한 상황에 등판을 많이 하고 있다. 좋은 경력이 된다. 작년에는 타이트한 상황이 못 나가봤는데 올해는 못할 때도 있지만 경험하면서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느낌이다”며 “처음에 중요한 상황이 나가다 보니까 나도 어수선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서 결과가 좋지 않기도 했다. 안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다. 코치님께서도 상황에 따른 위기 대처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게 쌓이니 지금은 확실히 내 임무를 알고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는 것 같다.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결과가 좋은 것 같다”고 덧붙혔다.

필승조의 부상으로 인해 불펜에 쏟아지는 우려의 시선도 오히려 김재열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 그는 “기회라고 하지만 기회라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하는 자리다. (마운드에서) 나밖에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개인 성적보다는 팀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기려고 한다”며 “항상 기세는 밀리면 안 되다는 생각이다. 긴장된 모습 보여주기 싫고 항상 당당하고 기세 있게 하고 싶다. 못 던진 날도 그렇게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개인보다 팀’을 먼저 이야기하는 김재열은 도움이 되는 선수로 시즌 마지막까지 달리겠다는 각오다. 그는 기본 좋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 신랑’이기도 하다.

김재열은 “오는 12월 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팀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개인 성적을 떠나서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기분이 좋다.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니까 마운드에서 강한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재열은 “오는 12월 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팀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개인 성적을 떠나서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기분이 좋다.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니까 마운드에서 강한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 김주형, PGA 투어 신인상 차지할까

윈덤 우승·페덱스컵 랭킹 35위  
영·티갈라와 함께 후보 올라  
PGA 올해의 선수 후보에는  
매길로이·셰플러·캐머런 스미스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2023시즌 출전권을 따낸 김주형(20)이 2021-2022시즌 신인상 후보로 선정됐다.

PGA 투어는 6일 2021-2022시즌 올해의 선수와 신인상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신인상 후보로는 김주형 외에 캐머런 영, 사히스 티갈라(이상 미국)까지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은 올해 PGA 투어 11개 대회에 출전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스코틀랜드오픈 3위, 로켓모기지 클래식 7위 등의 성적을 냈다.

시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기는 페덱스컵 순위에서는 35위로 시즌을 마쳤다.

아널드 파머 어워드로 불리는 신인상은 2021-2022시즌 정규 대회에 15차례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투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까지 마감하며 수상자는 추후 발표된다.

김주형이 후보에 올랐지만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는 역시 영이다.

영은 이번 시즌 25개 대회에 나와 브리티시오픈을 비롯해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웰스 파고 챔피언십, 로켓모기지 클래식 등 준우승을 다섯 번이나 했다.

우승은 없지만 페덱스컵 순위 19위로 신인상 후보 가운데 가장 높다.

티갈라는 32개 대회에서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준우승, 피닉스오픈 3위 등을 기록하며 페덱스컵 순위 28위에 올랐다.

신인상 후보 세 명 가운데 김주형이 유일하게 우승 경력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신인상 투표에서 우승 여부보다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가 더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2018-2019시즌 아시아 국제 선수 최조로 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임성재(24)는 당시 후보 콜린 모리카와, 매슈 윌프, 캐머런 챔프(이상 미국)와 경쟁했는데 그때는 임성재만 우승이 없고 모리카와, 윌프, 챔프는 모두 1승씩 있었다.

하지만 페덱스컵 포인트가 가장 많았던 임성재

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선수 후보로는 페덱스컵 챔피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올해 디오픈 우승자 캐머런 스미스

(호주) 세 명이 선정됐다.

스미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시리즈로 이적했기 때문에 득표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KBO, 주말에 비 오면 ‘월요일 야구’ 진행한다

주말에 비가 오면 ‘월요일 야구’가 진행된다.

KBO가 6일 “최근 우천 취소 경기가 증가함에 따라 월요일 경기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토요일)·11일(일요일) 경기가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는 월요일이자 대체 휴일인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7일(토요일), 18일(일요일) 경기가 비로 진행되지 못하면 19일 오후 6시 30분으로 마뮈 치러진다.

해당 주말 2경기가 모두 취소되면 한 경기가 월요일에 편성되고, 나머지 한 경기는 추후 진행된다.

다.

최근 KBO는 늦은 장마와 태풍 한반도의 영향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KIA는 한반도가 북상하던 지난 3·4일 KT와의 주말 2연전은 정상적으로 치렀지만, 앞서 8월 30일 한화 원정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지난주 5경기를 소화했다.

KIA는 이번 주말에는 잠실에서 두산과 대결하고, 다음 17·18일에는 대구를 찾아 삼성과 경기를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황희찬의 새 포지션 경쟁자는 디에고 코스타

### 올버햄프턴 1년 계약 합의

베테랑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34)가 황희찬(26·올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포지션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 언론인 파브리스로 마노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코스타가 오늘 영국에서 매디컬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며 “코스타와 올버햄프턴은 이미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스�포츠 매체 디에스레티도 “코스타가 6일 영국에서 매디컬테스트를 진행한다. 순조롭게 풀린다면 코스타는 자유계약으로 올버햄프턴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스타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생활을 마지막으로 유럽을 떠나 클럽 아틀레티코 미네이루(브라질)에서 뛰었지만, 지금은 소속팀이 없다.

여름 이적 시장이 닫혔지만 자유계약(FA) 신분이라 새로운 팀으로 합류가 가능한 상태다. 올버햄프턴으로서는 이적료 부담 없이 검증된 대체자를 찾는 셈이다.

2006년부터 유럽 무대를 누빈 코스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도 활약한 경험이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첼시 소속으로 리그 89경기에 출전해 52골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 김세영·김효주·최혜진 LPGA 신설대회 우승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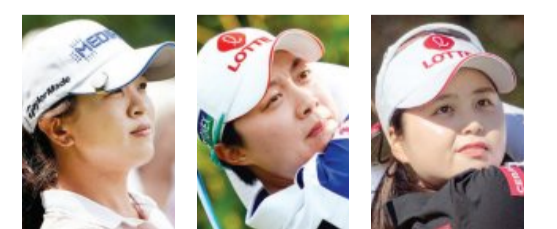
###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출전

김효주(27)와 김세영(29), 최혜진(23)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설 대회 초대 챔피언 도전에 나선다.

이들은 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퀸우드 컨트리클럽 켄데일 코스(파72·6515야드)에서 열리는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다.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 열릴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다나 오픈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 성적인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던 김효주와 김세영이 선봉에 선다.

김효주는 다나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선 6타를 줄



김세영 김효주 최혜진

이며 순위를 끌어 올린 바 있어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도 주목된다. 이번 시즌 아직 우승이 없는 김세영도 CP 여자오픈 공동 9위, 다나 오픈 공동 13위 등 최근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다. 신인왕 후보 최혜진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신인상 포인트 1041점을 쌓아 1위 티미쿰(태국·1096점)과 근소한 차로 2위를 달리는 최혜진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우승 트로피가 더욱 절실하다. 연합뉴스